

農家가 할 수있는 豫防과 處置(2)

이 순 우*

4. 고 창 증

소의 위내에서는 항상 발효가스가 생기고 하품하는 식으로 밖으로 토해내고 있으나 그것이 위내에 남아 있는 것을 고창증이라한다. 기체의 가스(보통의 가스)와 거품이 많이 생겨서 부풀어 팽창하는것의 두 종류가 있다.

5. 급성고창증

보통의 가스는 제 1 위입구(분문부)가 1위 쪽으로 이동해서 열리는 운동에 의하여 “푸” 하고 입으로 배출된다. 그것이 갑자기 가스가 생겨 위가 팽창하게되면 분문부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복부가 팽팽하게 되어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질식사하게 된다. 수의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복부를 문지르고 혀를 빼내거나 두서너 흡의 석유를 마시게 하여, 만약 위운동이 일어나서 “푸”하고 가스를 토해내면 기적처럼 치료될때도 간혹 있다. 만약 그와같은 방법도 불가능하고 위험을 느끼면 팽창되어 있는 좌측 옆구리배의 피부를 길이 2~3cm정도로 면도칼과 같은것으로 절개하고 붓대와 같은 대나무 통을 이용하여 끝을 사면으로 예리하게 깎아서

찢어보면 가스가 대나무 통을 통하여 빠져나와 질식사를 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후의 처치는 수의사에게 맡겨서 치료토록 하면 쉽게 처치할 수 있으며 문제없이 치료된다.

죽은 다음에 수의사를 초청해도 죽은 소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 예를 들면 우량종의 소가 있었는데 밤 9시경 축추가 야생의 뽕잎을 한다발 주어서 원기왕성하게 먹는것을 보고 잠들었더니 약 30분후에 우사가 소란하여 둘러본즉 배가 팽창하여 비실비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의사를 급히 초청하였으나 발견 후 10분후에 달려간 그때는 이미 소는 죽어 있었다. 수의사가 전자의 방법을 축주에게 지도하여 수의사에게 전화함과 동시에 그와같은 처치를 먼저 하도록 하였던바 왕진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때 붓대통을 옆구리 배에 깎 채 소가 먹이를 먹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소의 치료가 어렵게되면 모두가 절박도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 한 하고 있는 것이다. 부상하여 보행을 할 수 없고 난폭하게 되기 때문에 도살하여 도축장으로 운반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난산일 경우 어미소가 지쳐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될 경우 죽으면 식용이 안되므로 질병이 아닌 이상 도축하여 피를 빼고 도축장으로 운반하여 수의사의 검사를 받거나 또는 지금까지 건강했던 소가 급성고창증으로 질식하게 된 소는 건강우와 다름이 없

*대한수의사회

므로 죽기전에 피를 빼서 역시 수의사의 검사를 받으면 식용에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과식하여 며칠씩 앓다가 까스가 차서 죽을듯하니 피를 빼고 도축장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질병우임으로 식용에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6. 급성고창증과 오진되기 쉬운 탄저

소가 급사하기 전 아무런 임상적 병적증상을 인정할수 없었기 때문에 급성 고창증으로 진단하고 고기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부주의하게 축주에 동정한 나머지 급성고창증의 진단서를 발부해준다면 큰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발생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축공통전염병인 무서운 탄저는 사람의 경우 2~3일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으나 소의 경우는 대부분 급사한다.

탄저의 경우 소가 죽으면 곧 복부가 팽팽하여져서 급성 고창증과 오진하기 쉽다. 낙농가들은 욕심을 내지 말고 수의사에게 철저한 검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탄저사건의 대부분은 이와같은 것을 모르는 축추나 가축상인들의 요청으로 부주의하게 진단서를 발부하여 도축장으로 반입하여 부검결과 발견되든가. 밀도살하여 탄저에 감염된 사람이 발병, 사망한 후 알게되어, 흘린 피나 운반한 도로를 소독하고 대소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관계지역의 이동금지는 물론, 집유금지 등 사회적 대피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7. 포말성 고창증

현재 고창증으로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의 이 포말성 고창증이다. 복부가 팽만하여 있으므로 이것은 가스라 생각하고 여러가지 처치나 가스를 뽑아내는 침 등을 찔러도 부글부글하면서 거품이 나올 뿐 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는 중에 투관침의 주위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오거나 그것이 피하에 스며들어 피부가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 심한것은 소등전체가 피하기종이 된다. 이것은 콩종류나 건채류가 특수한 발효를 하여 점액소와 가스를 생산해서 부글부글한 작은 기포로 변하기 때문이다 보통 발효가스는 먹이로 부터 떨어져서 제 1위의 윗쪽에 남게 됨으로 토해내게 되나, 이 경우는 위 내용물 전체가 부글부글하게되어 팽팽하여짐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

경증(輕症)의 경우 소포제(消泡劑)를 투여하여 치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증세가 심한것은 약효가 듣지 않으며 질식사하게 됨으로 중증이라 생각되면 수의사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제 1위 절개수술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다. 제 1위 절개수술의 경우 창구(創口)의 오염등으로 화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수술이 양호해도 복막염 등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재수술 등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별로 염려될 것은 없다.

위즙이식(胃汁移植) : 포말성 고창증을 포함하여 불량발효로 인해 화학적 손상을 입은 환우에 대하여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건강우의 위내즙액(胃内汁液)을 먹이면 균형이 잡힌 좋은 세균군을 증식하여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내의 상태 변상(變狀)이 심할때에는 별 효과가 없다.